

“ ‘방만 경영’ 강진·순천의료원 개선 없으면 문 닫아라”

도의회 업무보고서 “노조 인사개입·경영 지배” 질타 적자운영·무원칙 인사·계약특혜 등 고질 비위 되풀이 외부인사 채용 모르쇠·환수금 포기...수당은 되레 늘어

회계 부실과 인질 특혜 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강진·순천의료원이 수년째 제대로 된 개선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 특장감사, 정부 보조금 지원 보류 등 고강도 조치에도 외부인사 채용 등 실추된 의료원 위상 회복은 나뉠라 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이 나온다. 특히 양 의료원 모두 노조가 사실상 인사·경영을 지배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나 단체협약 개정 등 강력한 쇄신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부 도의원은 폐원 등 특단의 대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은 최근 전남도의 특장감사를 통해 의료원 전반의 부실·방만경영이 대거 적발됐다.

의료원장은 2016년 6월 이후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들의 연봉도 원장 독단으로 책정했다. 원장은 도지사과 연봉계약 체결 대상자로 초과진료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썼다. 급기야 원장은 감사 도중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또 2016년 11월 이후 39건 36억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강진의료원은 이 같은 비위 적발에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3월 기각됐다.

강진의료원의 비위는 이번만이 아니어서 의사·간호사·행정직원에서 진료부장·간호과장·총무과장 등 중간 관리 책임자들까지 이른바 ‘나이롱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돼 전국적 망신을 샀다.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수입에 따른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아오다 들뜬나기도 했다.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에서 구내식당·장례식장 물품 구매 특혜 등이 대거 적발됐다. 순천의료원 역시 그동안 장례식장 부당이득을 비롯, 유골을 미끼로 한 뒷돈 등 파렴치한 행각들이 드러났었다.

순천·강진의료원의 비위는 수년째 관행처럼 이

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선안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강진의료원은 특장감사와 관련해 이날 도의회에 개선책을 내놨지만, 인사위원회 개최와 의료원 발전자문위 구성이 사실상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혁신과 견제의 수단인 4급 총무·원무과장의 외부 경력직 공개 채용은 외부 관리자 채용 시 단체협약상 ‘합의’를 내세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환수 대상인 전임 원장의 초과진료성과급 1억5,000만원도 전임 원장의 거부로 사실상 포기 상태다. 빈약한 개선안과 달리 되레 보수규정은 강화해 복지 포인트를 신설했고, 명절 의사직 일·숙직수당도 현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했다. 특별휴가수당(보건수당)도 개정했고, 매월 친절 우수사원 인센티브로 상품권(5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순천의료원도 경영·인사권 합의를 내세운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외부인사 채용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양 의료원은 앞서 지난해 전남도에 제출한 경영 개선안에서도 의료원 역량모델 개발 등 하나마나한 방안을 내 혁신의지가 없다는 질타를 받았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김기성(담양2)의원은 이날 이뤄진 양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의료원 인사·경영·기획에 노조 개입을 있을 수 없다”며 “노조의 개입이 지나쳐 위기 상황인 의료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문을 닫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보라미(영암2)의원은 “순천의료원이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지만, 회계, 식자재 구입 등 경영은 1년짜리 병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고, 한근석(민주당 비례)의원은 “강진의료원에 한해 어마어마한 도비가 지원되지만 매년 똑같은 사안들이 지적된다. 폐쇄리는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강진의료원의 혁신방안 미비를 이유 국·도비 보조금 60억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했다 최근 운영비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정근산 기자



부산서 수영대회 조형물 제막 10일 오후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30 기념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용섭 조직위원장(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부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놓고 노-사 격돌

최저임금위원회, 광주서 공청회...인상폭·차등인상 입장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인상 등을 놓고 노사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각 3명씩이 발제자로 참석해 가운데 각자 상황과 입장을 차례로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연민 광주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 산업범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제 급여는 전보다 줄어 들었다”며 “복지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약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마옥천 베비에르 과자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감소로 인건비를 줄이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갈수록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지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근로 조건이 형성되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된다”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더욱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기자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

전두환 공판에 정수만 전 유족회장, 항공대 일지 공개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라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졌다. > 관련기사 7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0일 201호 형사대법정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헬기사격’을 입증하는 다양한 자료를 법정 증언에 앞서 공개했다.

정 전 회장은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계엄사령부 황영시 부사령관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등의 헬기 사격 명령 ▲1980년 5월 27일 1항공여단 상황일지에 ‘폭도사살 2명’이라고 적힌 자료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

지침’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전달한 기록 등을 제시했다. 정 전 회장은 “항공여단에선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료 검토 중 1항공여단 일지에 폭도 두명을 사살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또, ‘무장시위 및 의명화력지원’이라고 적시된 계엄사령부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무력 진압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의 증언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육군 31사단장이 505항공대 소속 500MD 무장헬기 조종사를 호출해 ‘로켓포를 쏘더라도 때려라’며 출동 명령을 한 증언이 담겨있다. /고광민 기자

전남매일 연승 전략인 지역 기업을 살립니다!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마스터즈대회 2019.8.5. ~ 8.18. (14일간)